

오리산업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 장흥군

오리 부화·사육·도압·가공·포장 모든 것을 한 곳에



광주전남지원 선임평가사 이수홍, 청년인턴 최재열

I. 오리산업의 선두주자, 전라남도 장흥군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기로 잘 알려진 정남진 장흥은 읍내를 가로지르는 탐진강가에 위치한 토요재래장터로도 유명하며, 토요일이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장흥군은 한우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년 365일 따뜻한 기운을 강점으로 내세워 오리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군의 2012년 말 오리 사육농가는 56농가 60만 수 이상으로 사육규모가 전남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70% 이상이 오리계열화에 참여하고 있고, 종오리 사육을 포함한 도압·가공·포장 등 일관 생산 체계가 구축된 국내 최대의 오리산업단지이다.

〈2012년 장흥군 축산업 현황〉

품목명	농가수	두수(본수)	연간소득(천 원)	전남 점유율(%)
한우	2,913	57,246	135,290,922	10.2
돼지	27	16,780	12,585,000	1.9
닭	407	683,625	9,064,867	2.9
오리	56	633,731	18,584,468	8.0

장흥군은 HP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급식과 군납 등의 다양한 대량 소비처를 형성하여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요리 개발과 배달중심의 통닭과 같이 접근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리고기 등급제와 포장유통을 정착시키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오리고기 수출기반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II.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가공 전문업체, 다솔

다솔은 부화와 사육을 전문으로 운영하던 다솔영농조합법인을 모태로 하고 코리아 더커드와 팜덕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도압에서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공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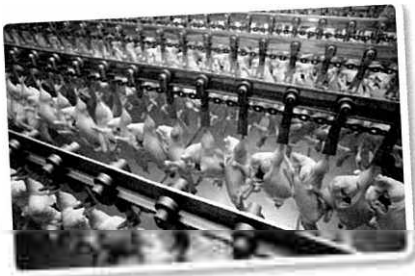


다솔은 2011년 5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과 MOU를 체결하고 6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면적 6만 6,000㎡(약 2만 평) 규모로 2013년 5월 13일 준공식을 마쳤다.



무균설비와 외부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내부온도와 습도, 냉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췄으며, 시간당 9,000수, 1일 7만 2,000수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설비와 도축두수의 절반인 3만 6,000수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도압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리털을 1일 기준으로 2.5t 가공할 수 있는 설비와 함께 90t의 얼음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제빙시설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압과 가공라인에서 작업 경로를 철저히 분리해 라인별 교차오염을 제로화하는 등 완벽한 위생설비와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리고기의 영양과 맛이 파괴되지 않고 보관하는 무균기술(Aseptic)과 포장재 등 최신 무균설비시스템을 갖춰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오리고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솔은 오리고기의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솔에서 오리등급판정이 실시되면 고품질의 오리고기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Ⅲ.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한국원종오리(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종오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종오리 수출국에서 살모넬라나 고병원성 AI, 자연재해 등으로 수출이 곤란할 경우 국내 오리산업도 함께 영향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오리협에서는 검역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국내 오리업계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건강한 종오리(PS)를 공급하여 사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청정지대인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에 원종오리농장을 건립하였다.

한국원종오리(유)는 지리적으로 설계된 사육장 8동과 부화장 1동 등 최적의 조건에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사육되는 원종오리는 체리벨리와 그리프드 약 2만 4천 수로 2012년에 약 35만 수(월29,000수)의 종오리를 생산하여 회원사로 공급하였고, 올해는 약 60만 수의 종오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종오리 사육마리수〉

품종	암컷	수컷	계
체리벨리(영)	17,730	3,850	21,580
그리프드(프)	2,540	510	3,050
합계	20,270	4,360	24,630

※ 종오리(PS) 생산능력 : 62만 수(2013년 기준)

한국원종오리(유)의 종오리 생산은 오리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경영개선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였고, 기존 종오리 수입의 대체효과와 수입·통관·검역 등의 제비용을 크게 절감하였다. 특히 종오리 수출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종오리 수급이 가능케 되었다.

장흥군과 한국원종오리(유)는 장흥군 안양면에 제2의 농장을 위한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축사 7동을 등 사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2농장 완공되면 연간 90만 수의 종오리가 생산되어 오리 사육농가에 공급될 수 있어 오리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리현**

☎ Mini 인터뷰



이명흠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국내 유일의 원종오리농장과 국내 최대의 오리 도압공장이 위치한 오리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향후 오리의 등급판정을 적극 지원하여 장흥군에서 생산하는 오리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오리고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